

[보잉] 카타르向 KC-46A 급유기 45 억달러 판매 승인 - 방산 수주 파이프라인 확대 신호



26.08.20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핵심 요약

- 국무부, 카타르向 KC-46A 급유기 45 억달러 판매 승인
- 보잉 등 4 개사 공동 주계약, 실제 계약체결 전 승인 단계
- BDS 적자 지속 속 수주잔고 확대 잠재 요인

미국 국무부가 카타르에 KC-46A 공중급유기와 관련 장비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규모는 45 억 달러이며, 주계약자로 보잉과 함께 프랫앤티트니 밀리터리 엔진, RTX, 노스롭그루먼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승인은 미국 정부가 해외 정부에 무기 판매를 허용하는 절차(대외군사판매)의 승인 단계로, 실제 계약 체결과 인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한다. 45 억 달러도 보잉 단독 몫이 아니라 엔진·전자장비 등을 포함한 패키지 전체 금액이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면 이 소식은 보잉의 방산 부문(BDS)과 맞닿아 있다. 우리가 그동안 핵심 리스크로 짚어온 BDS는 직전 분기 영업이익률 -0.2%로 여전히 적자권에 머물러 있고, VC-25B 같은 고정가 개발 프로그램에서 반복적인 손실이 발생해왔다. KC-46A는 이미 개발이 끝나고 생산·인도 단계에 들어선 프로그램이라 신규 해외 판매가 고정가 개발 리스크와 같은 성격의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 다만 이번 승인 건의 구체적 계약 조건과 마진 수준은 입력에 담겨 있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다.

직전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수주잔고(7,150 억 달러)와 연결지어 보면, 계약이 실제로 성사될 경우 장기 매출 가시성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소식이다. 다만 현재는 승인 단계일 뿐이라 즉시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사안은 아니다. FAA의 737 맥스 좌석 결함 감항 지시나 SPEEA 노조의 계약 만료 같은 진행 중인 실행 리스크에 비하면 이번 건이 주가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는 실제 계약 체결 여부와 최종 계약에서 보잉이 가져가는 몫, 인도 일정, 그리고 이 물량이 BDS 마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재무 요약 (I/B/E/S 컨센서스)

항목	FY Dec-24	FY Dec-25	FY Dec-26 (E)	FY Dec-27 (E)	FY Dec-28 (E)
매출 (Revenue)	66.52	89.46	98.21	112.81	123.44
↳ 증가율	-14.50%	34.50%	9.77%	14.87%	9.42%
매출총이익	-1.99	4.29	12.45	17.97	22.80
↳ 마진	-2.99%	4.79%	12.68%	15.93%	18.47%
EBITDA	-8.87	6.23	4.40	8.62	12.53
↳ 마진	-13.34%	6.97%	4.48%	7.64%	10.15%
영업이익 (EBIT)	-10.71	4.28	2.13	6.16	10.02
↳ 마진	-16.10%	4.79%	2.17%	5.46%	8.12%
순이익	-13.18	-4.99	-0.64	3.19	6.51
↳ 마진	-19.82%	-5.57%	-0.65%	2.83%	5.27%
EPS	-20.38	-6.54	-0.91	3.91	7.91
↳ 증가율	250.77%	-67.91%	-86.13%	-530.73%	102.39%
잉여현금흐름 (FCF)	-14.31	-1.88	2.45	6.15	9.93
P/E	—	87.6x	—	56.9x	28.1x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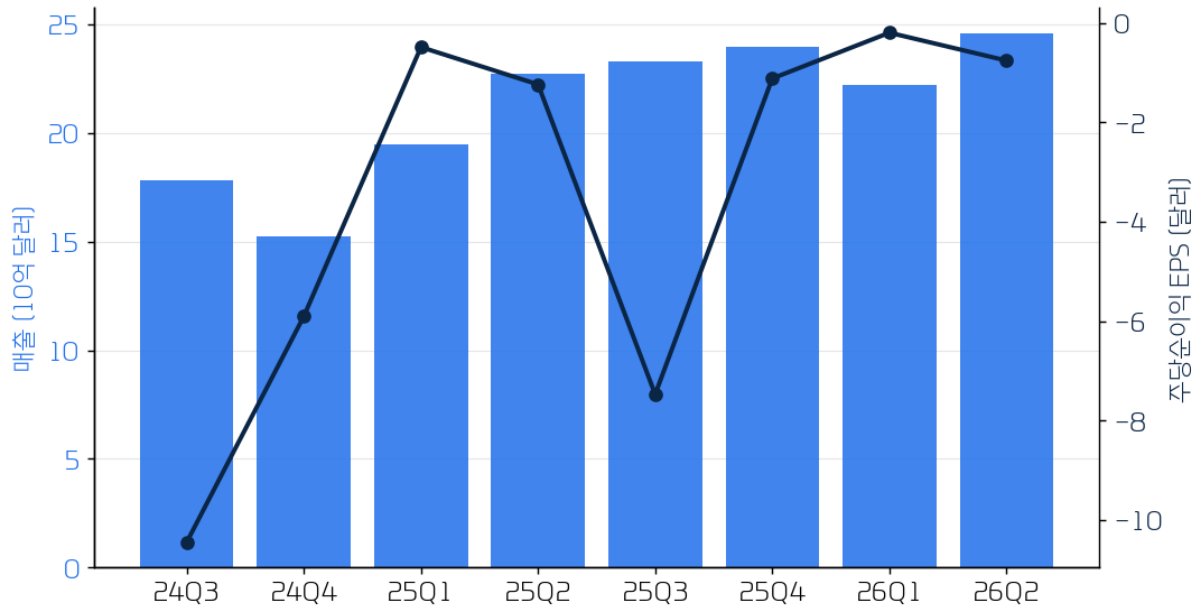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YoY, 단위는 십억 USD

참고 차트

BA 주가·12개월 선행 EP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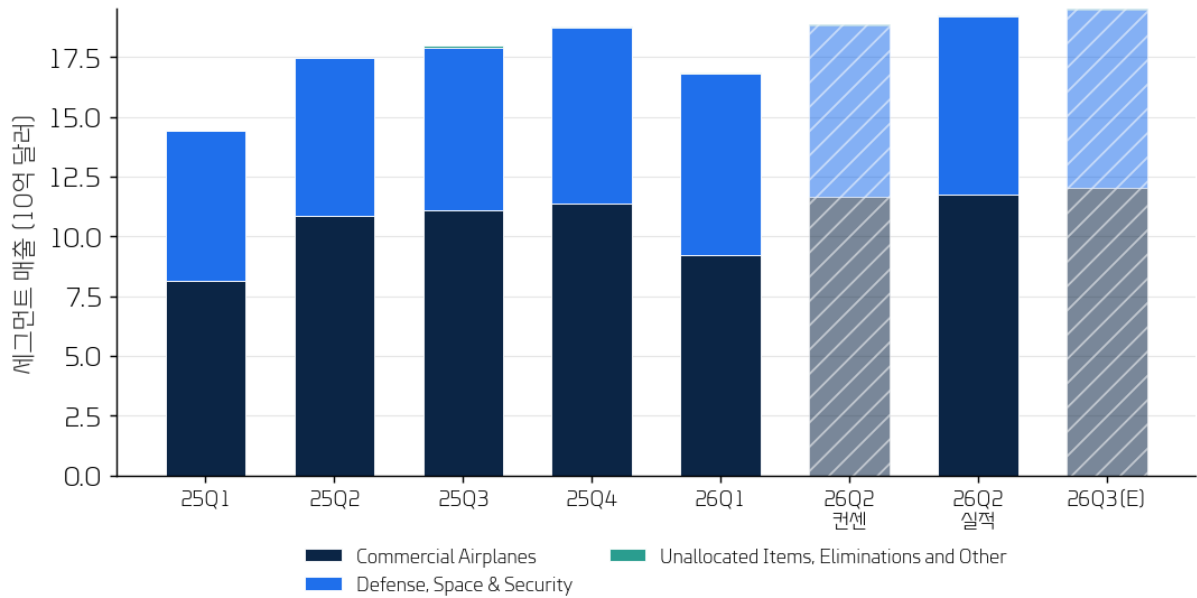


BA 분기 매출·주당순이익(EPS) 과거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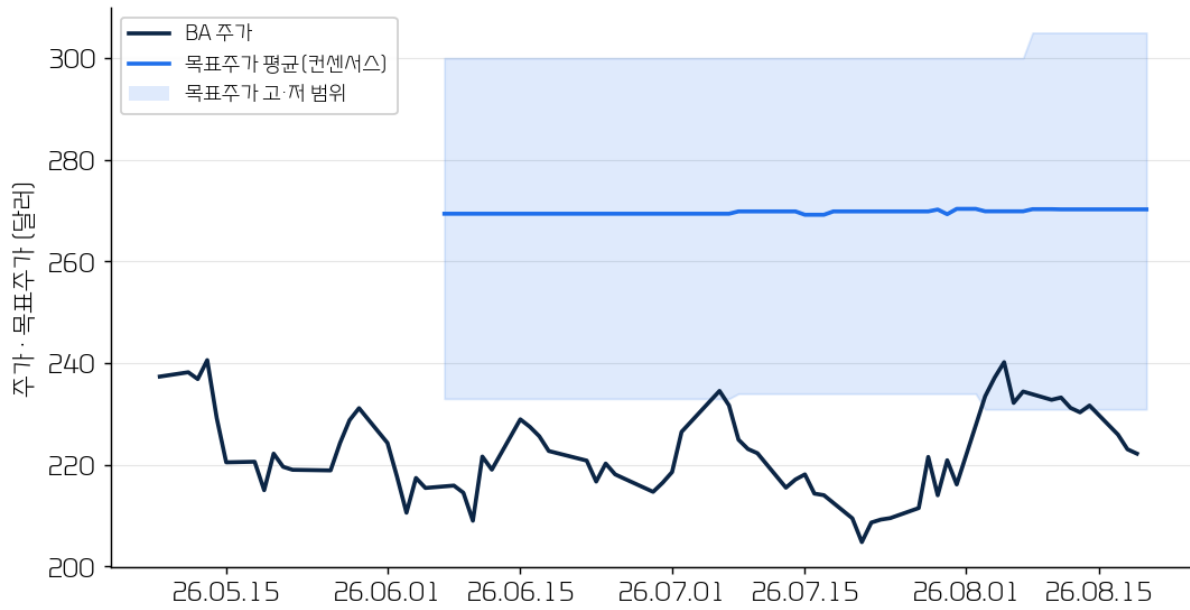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BA 세그먼트 매출 구성(사업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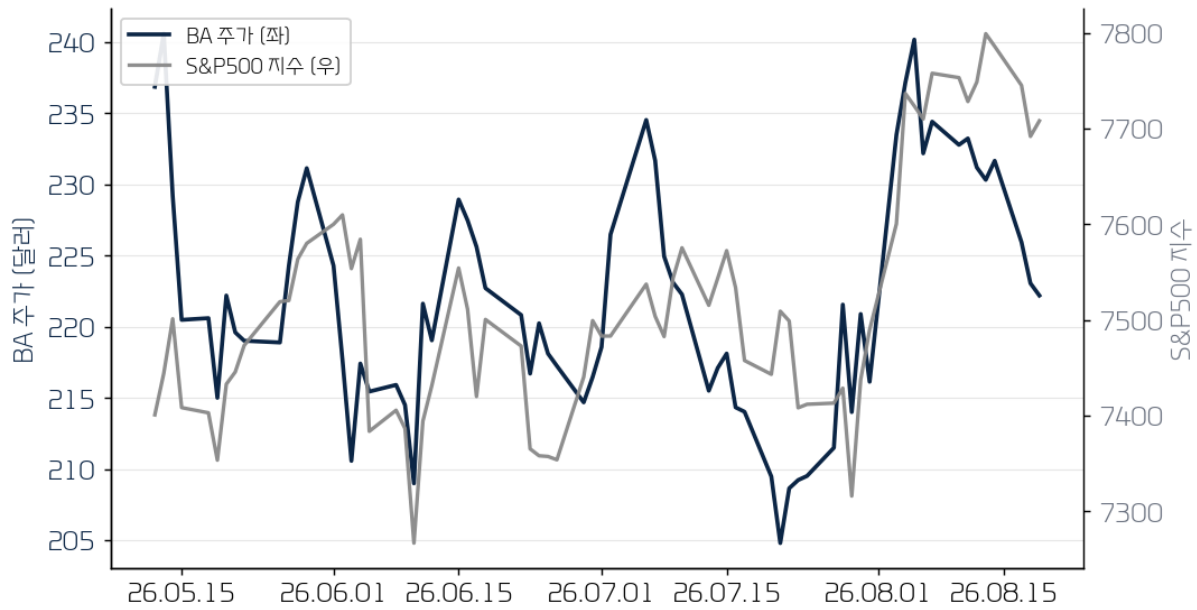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BA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추이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BA 주가 vs S&P500 (최근 90 일)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